

## 추리 멜로드라마와 근대화의 젠더의식\*

: 박경리의 『가을에 온 여인』과 박완서의 『욕망의 응달』을 중심으로

최경희\*\*

### 차례

1. 서론
2. 사랑밖에 모르는 마녀의 '순수한' 욕망 혹은 폭력
3. 가정의 수호자와 파괴자 그리고 아버지의 '응달'
4.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박경리의 『가을에 온 여인』과 박완서의 『욕망의 응달』에 나타난 추리 멜로드라마가 근대화 담론이 내재한 젠더질서를 재생산, 교란, 해체한 점을 분석하였다. 『가을에 온 여인』이 사랑에 대한 병적 소유욕, 남성의 성적 판타지, 불구적인 가족관계, 사디즘적이고 마조히즘적인 부부생활, 여성의 모성과 자기희생, 무엇보다 살인과 자살 등의 폭력과 비극을 통해 연애와 결혼 대한 지배담론의 규범을 뛰어 넘으며 여성의 욕망과 근원적인 사랑의 문제에 천착한 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마녀와 성녀 그리고 남성의 성적 판타지라는 드라마틱한 서사를 통해 살인에 대한 양가 감정, 선과 악의 해체 그리고 범죄동기에 대한 감정이입 등을 모과함으로써 사랑이 어떻게 살인라는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형상화하며 당대의 젠더의식을 문제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을 살펴 보았다.

\* 이 논문은 2017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2046).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글쓰기 강사

한편 『욕망의 응달』이 죽은 남자/사파리 아저씨/연하의 어머니/밀월/저택집 사람들/참변/인과(因果)의 집/인간의 꽃 등 추리 멜로드라마적 전개로써 근대화의 ‘응달’로 상징되는 아버지의 폭력적 과거사를 청산하는 두 여성인물의 서로 다른 방식을 통해 젠더질서를 재생산 점에 주목하였다. 『욕망의 응달』이 미혼모와 상속자와의 결혼, 복수의 음모를 숨긴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젊은 시어머니, 죽어가는 아버지의 유산을 둘러싼 암투, ‘저택집’ 살인사건 그리고 이같은 몰락의 위기에서 가정을 구한 여성성을 형상화해 가정의 신성성과 숭고함을 재생산한 점을 분석하였다.

핵심어 : 박경리, 박완서, 가을에 온 연인, 욕망의 응달, 추리, 멜로드라마, 근대화, 전통, 젠더, 가정, 성녀, 마녀, 신가부장제, 연애, 결혼, 사랑, 욕망

## 1. 서론

본고는 박경리의 『가을에 온 여인』(『한국일보』, 1962. 8.-1963. 5)과 박완서의 『욕망의 응달』(『여성동아』, 1978. 8.-1978. 1)<sup>1)</sup>을 대상으로 두 작품이 추리 멜로드라마적 전개를 통해 근대화의 젠더의식을 재생산하고 해체한 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두 작품은 범인과 희생자, 그리고 사건 해결사를 중심으로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추리서사<sup>2)</sup>이다. 또한 범죄 자체보다 범인이 왜 범죄를 저질렀는가, 범인의 내면심리에 초점을 두고 범죄 원인을 설득력있게 전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쉽게 범인과 동일시를 느끼게하는 추리 전개<sup>3)</sup>를 구현한다. 그리고 삶이 담고 있는 본질을 탐색하며 범죄 원인을 제공한 사회적 환경과 범인의 내면세계를 설득력있게

1) 본고는 『박경리문학전집8-가을에 온 여인』(지식산업사, 1980)과 『욕망의 응달/박완서 전집5』(세계사, 1993)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 Todorov, 『산문의 시학』, 유제호 역, 예림기획, 2003, 47쪽.

3) 대중문학연구회편,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7, 30쪽.

묘사하는 본격추리소설의 특징을 보여준다.<sup>4)</sup> 또한 두 작품은 멜로드라마적 요소를 보여준다. 이때 멜로드라마는 ‘과잉’, ‘지나친’, 그리고 ‘과장된’ 등의 주정주의(emotionalism)와 감상성을 강조하며 히스테리나 신경쇠약을 보이며 극도로 감정의 속박으로 고통받는 인물들<sup>5)</sup>이 등장하고 악인의 증오, 시기, 질투, 양심, 악의적 표현, 도덕적 양극화, 그리고 선정주의 등의 구성을 가지며<sup>6)</sup> 특히 근대적 개인의 불안정함<sup>7)</sup>을 구현하는 서사를 의미한다. 본고는 이같은 맥락에서 두 작품을 추리 멜로드라마로 규정하고자 한다. 두 작품이 추리 멜로드라마를 통해 근대화 담론이 내면화한 젠더의식의 당대적 실체를 내포한 점을 포착하고자 한다. 본고는 『가을에 온 여인』이 광적이고 병적인 소유욕, 남성의 성적 판타지, 불구적인 가족관계, 사디즘적이고 마조히즘적인 부부생활, 모성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살인과 자살 등의 추리 멜로드라마를 통해 여성의 욕망과 근원적인 사랑의 문제에 천착한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마녀와 성녀라는 이분법적 여성인물, 살인에 대한 양가감정, 선과 악의 해체, 범죄동기에 대한 감정이입 그리고 폭력적이고 비극적인 사랑의 파국을 통해 당대의 젠더의식을 해체하면서 그 한계 또한 보여준 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욕망의 응달』에 나타난 미혼모와 상속자의 결혼, 복수의 음모를 숨긴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젊은 시어머니, 죽어가는 아버지의 유산을 둘러싼 암투, ‘저택집’ 살인사건, 그리고 이같은 몰락의 위기에서 가정을 구한 여성성이 내포한 젠더질서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근대화의 ‘응달’로 상징되는 아버지의 폭력적 과거에 대한 두 여성인물들의 청산 방식이 가정의 신성성과 숭고함을 지향한 젠더질서를 재생산함과 동시에 저항의 한계 또한 드러낸 점을 살피고자 한다.

추리소설은 일제 강점기 김내성, 채만식, 김동인, 김유정 등을 중심으

4) Reuter, 『추리소설』, 김경현 역, 문학과 지성사, 2000, 120쪽.

5) Ben Singer, 『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 이위정 역, 문학동네, 2009, 63쪽.

6) 위의 책, 83쪽.

7) 위의 책, 199쪽.

로 엮편·창작물을 통해서 우리 문학에 처음 등장했다. 이 시기 추리소설은 고전 추리소설의 서사구조를 철저히 구현했고 식민지 민중의 지향과 문학적 진로를 모색한 문단 분위기와 맞물려지면서 대표적인 대중문학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sup>8)</sup> 이러한 추리소설의 위상은 1950-1960년대부터 다소 추락했다. 추리작가와 일반 소설가의 분리가 엄격해진 것과 추리소설이 전쟁과 분단이라는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1960-1970년대 추리서사에 대해 평자들은 산업사회에 맞는 신중산층의 오락문학이자, 사회체제가 내재한 역사성을 유추할 수 있는 문학,<sup>9)</sup> 사랑에 대한 여성인물의 내적 과정을 납득시키는 매개,<sup>10)</sup> 당대의 사회적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도구<sup>11)</sup> 등으로 평가했다. 박경리와 박완서의 작품들은 이같은 당대적 추리서사의 특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여성을 사회적 위험인물로 묘사하는 1930년대 추리서사의 한계<sup>12)</sup>를 뛰어 넘어, 동시대 발표된 추리서사

8) 오혜진, 『1930년대 한국추리소설 연구』, 어문학사, 2009, 12~16쪽.

9) 임현영은 “산업사회에서의 신중산층의 오락문학을 위해서는 추리문학을 빼놓을 수 없다.”면서 “여기서 말하는 추리문학이란 탐정 소설이 아니라 그 사회체제가 숨기고 있는 역사의 일식 부분을 민중들이 유추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넓은 뜻에서의 문학을 뜻한다.”고 말했다.(임현영, 『산업화시대의 문학정신』, 『동아일보』, 1978. 3. 2)

10) 주요섭은 한말숙의 『하얀도정』에 나타난 추리서사적 기법이 “애정의 유희 행각에 만족하던 여주인공 인옥이가 결국 진지하고 열렬한 연애로 끌려가는 심리적 과정이 납득이 되고 공감을 느끼게 해주는 매개로 작용한 것이라 했다.(주요섭, 『사랑의 역정을 묘사한 한말숙 저 하얀도정』, 『경향신문』, 1964. 12. 9)

11) 조해일의 『갈 수 없는 나라』는 “추리소설의 형식을 빌어서 쓴 사회소설”로써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작품으로 평가 받았다. (『경향신문』, 1979. 4. 11)

12) 1930년대 대표적인 추리서사로는 연인의 배신을 살인으로 복수하는 여성의 광적 심리를 다룬 작품(최유범, 『질투하는 악마』, 『별건곤』, 제72호, 1934. 4. 1), 사회적 신분이 높아진 연인의 배신을 살인으로 복수한 남자의 복수서사(최유범, 『K박사의 명안』, 『별건곤』, 제62호, 1933. 4. 1), 집안의 복수를 위해 계약 결혼하는 여성의 서사(유방, 『연애와 부수』, 『별건곤』, 제52호, 1932. 6. 1), 익명의 남자에게 신변위험을 당한 듯이 자작극을 벌인 여성의 히스테리(최병화, 『미모와 열조』, 『별건곤』, 제55호, 1931. 9. 1), 남편의 내연녀를 살해하고 남편을 범인으로 포함하는 치

들<sup>13)</sup>중에서도 뚜렷하게 젠더의식에 천착하고 있으며 호기심, 공포, 놀람, 동일시 등의 감정이입과 연애와 결혼이라는 멜로 드라마적 요소를 극대화하는 등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다.

『가을에 온 연인』과 『욕망의 응달』이 발표된 1960-1970년대는 서구식 경제체제와 전통적인 정신주의를 지향한 한국적인 근대화 기획이 다양하게 유통되며 여성의 내면과 일상에 영향을 끼친 시기이다. 도시화·산업화·선진화로 인한 도시인구의 집중 현상은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의 붕괴와 핵가족제도로 나타났다. 핵가족제도는 남성은 생계를 책임지는 가정의 가장으로 여성은 가사노동과 소비의 주체로 남녀의 역할을 구획해 젠더 질서를 더욱 공고히 했다. 무엇보다 가정이 중요한 소비주체지임을 부각시켰고 여성에게 과학적 가정경영과 전문적인 가정 관리자임을 자각시켜 더욱 사적영역에 머무르게 했다. 가정은 근대화를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되었고 국가는 결혼·교육·보건 등의 개인 생활을 관리했다. 또한 가정은 ‘사회적 기억의 향수’ 기표로서 근대화 연대의 정서적 장으로 위촉되었다.<sup>14)</sup>

근대화 기획이 가정에서 실천되길 의도한 지배담론의 대표적 예는 여성지에서 찾을 수 있다. 『가정생활』, 『여상』, 『여원』등은 여성성을 규범화한 젠더 프레임을 연애와 결혼 기사 등을 통해 꾸준히 게재했다. 연애를 ‘스위트 홈’을 위한 절차로 다룬 지면들<sup>15)</sup>은 연애감정을 가정의 신성성과

---

정살인극( 최유범, 『악혼녀의 악마성』, 『별건곤』, 제69호, 1934. 1. 1.)등이 있다. 이 작품들의 신여성은 연인을 배신하거나 연인에게 배신당하거나 공통적으로 ‘위험한 여성’으로 묘사되는데 신여성에 대한 당대의 사회적 인식을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3) 대표적인 동시대 추리 멜로드라마로는 강신재의 『그대의 찬송』(1964), 손장순의 『세화의 성』(1971), 한말숙의 『하얀도정』(1964),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1971),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1972), 조혜일의 『갈수 없는 나라』(1978)등이 있다.
- 14) 근대화 담론은 김은실, 『한국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논리와 가부장성』, 『당배비평』, 1999, 가을호, 87쪽; 이병천, 『개발독재의 정치경제학과 한국의 경험』,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창작과비평사, 2003, 60~65쪽; 조한혜정,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또하나의문화』, 1998, 95쪽; Elaine Kim 외, 『위험한 여성』, 박은미 역, 삼인, 2001, 40~41쪽 등을 참고함.

숭고함을 지키는 예비 가정관리자의 마음가짐으로 훈육 했으며 정신과 육체의 순결함을 강조했고 연애는 사회와 문화, 민족과 조국을 포용하는 박애주의로 비유하는 등 연애의 ‘에티켓’은 내조담론과 흡사하게 소개되었다. 한편 한국적인 근대화 담론을 내면화한 여성을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게재한 지면<sup>16)</sup>은 가정의 행복이 여성의 행복이라는 것, 남편과 자식을 모성으로 대하기, 그리고 내적인 전통미와 서구화된 과학적 생활양식 등의 내조담론을 비중있게 다루었다. 무엇보다 여성성과 전통미를 강조한 지면들<sup>17)</sup>은 전통재건자로서의 여성성을 지향했다. 이것은 전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에서 실천하기를 독려하며 서구식 근대화 모델을 쫓으며 느꼈던 한국적인 것의 결핍을 메꾸고자한 보상심리로 보인다. 또한 서구의 지도층 여성을 롤 모델로 설정해 신 현모양처를 제시<sup>18)</sup>하거나 가정 관리자로서 서구화된 전문성을 요하는 비법<sup>19)</sup>도 게재했다. 이렇듯

- 
- 15) ‘스위트 홈’을 위한 절차로서의 연애만이 사랑의 진정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본 연애와 결혼 지면의 예는 조연현, 『결혼예찬』, 『가정생활』, 1962. 10, 홍성유, 『현대사랑의 난류와 한류: 이율배반의 교훈』, 『여상』, 1964. 2, 원형갑, 『연애와 결혼의 미학』, 『여원』, 1965. 3. 등이 있다.
- 16) 내조를 다룬 여성지 지면은 김낙신, 『아내의 행복과 번뇌』, 『가정생활』, 1962. 5, 오형석, 『특집: 내조의 현대적 의미 - 현대여성은 내조를 하고 있는가』, 양주동·손소희, 『대담: 애처가와 공처가』, 『가정생활』, 1962. 7, 『여상』, 1963. 12, 이철범, 『특집: 한국여성 이것이 문제다 - 다시 생각해보는 내조의 의미』, 『여상』, 1964. 12, 방기환, 『특집: 가족의 평화를 위하여 - 고달픈 가장의 비애』, 『여원』, 1965. 1, 오화섭, 『여성, 사랑의 고행자』, 『여원』, 1965. 2, 김우정, 『가정과 남편과 사회』, 『여상』, 1966. 7 등이 있다.
- 17) 전통미에 대한 대표적 지면은 장덕조, 『걸인(傑人)이기 전에 먼저 여성이어야』, 『여상』, 1963. 1, 김동리, 『한국사상과 한국여성 - 종순하는 그 아름다움』, 『여상』, 1967. 9, 한상연, 『한국사상과 한국여성 - 의리에 사는 여인상』, 『여상』, 1967. 9, 황환식, 『한국사상과 한국여성 - 그 여인들의 가룩한 인종(忍從)』, 『여상』, 1967. 9, 홍종인, 『고전미를 살려야 하는 현대적 교양』, 『가정생활』, 1962. 4, 유진오, 『여성의 미』, 『여상』, 1963. 1. 책 H.에스링그 외, 『한국인이 본 바람직한 한국여인상』, 『여원』, 1974. 10. 등이 있다.
- 18) 서구형 신현모양처를 다룬 기사는 정충량, 『세기의 여왕 - 루주벨트 여사』, 『여원』, 1961. 4, 『수훈의 현모양처 존슨 대통령부인』, 『여상』, 1964. 4, 『행복이여 영원히 - 이란 화아라 여왕』, 『여상』, 1964. 10, 이춘란 외, 『특집: 세계 톱 여성의 인생과 사상』, 『여상』, 1967. 9. 등이 있다.

여성지는 정신적 전통미와 서구식 가정 관리자의 외모를 갖춘 여성성을 독려하며 한국적인 근대화 기획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동원된 여성성을 게재했다. 전통과 서구라는 양가적 가치가 이처럼 동시에 구호화된 것은 한국적 근대화라는 모호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처럼 근대화 기획이 유통한 젠더 질서<sup>20)</sup>는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를 모토로 삼으면서 남성 노동력을 우위에 두고 여성의 노동력은 보조자로 축소하였다. 다시 말해 여성은 가정, 남성은 일터라는 성별역할분담을 기반으로 한 가족 구성원을 지향했다. 직업인이기전에 가정 주부임을 잊지 말고, 특히 자녀 양육을 포기하고 사회로 뛰어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분위기에서 여성성을 주제로한 대중문학은 한국적 현실을 반영한 바람직한 여인상인지 의심스럽다<sup>21)</sup>는 비난을 받은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근대화 담론의 ‘바깥’에 있는 여성성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시기 대중문학은 한국적 산업자본주의의 세속적 풍경 혹은 사회적 리얼리티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있는 트렌디 드라마의 성격이 강하며 무엇보다 가부장적 규범과 이데올로기에 짓눌린 여성들의 젠더 체험을 포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 집단의 무의식적 욕망을 분출시키는 전복적 요소<sup>22)</sup>를 가지고 있다.

19) 가정관리자의 전문성을 다룬 지면은 합리적 소비생활, 자녀교육, 살림의 비법, 국산품 애용(염기철, 『능률적인 가정관리』, 『가정생활』, 1961. 7.), 선진국에서 체험한 가정생활 계획, 독립적인 생활 패턴, 근면, 검소, 금욕적인 생활(『좌담회 : 외국의 가정생활에서 본받을 점』, 『가정생활』, 1961. 8.), 독자 투고를 통한 가정살림 노하우 생활수기 : 우리집의 가계부(『여원』, 1963. 1.), 그리고 가정관리를 문화적 측면에서 보는 기사(김혜원, 『주부의 보물은 찬장안에』, 『여상』, 1967. 7.) 등을 통해 가정 관리자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20) 젠더의 질서에 관한 대표적 지면은 김중부, 『페미니즘과 스티기- 남성의 퇴색과 여권주의』, 『여성동아』, 1974. 7. 박정훈, 『오늘 그리고 미래의 한국여성 - 교유의 멋과 미래의 생활』, 『여상』, 1967. 10. 편집부, 『가정상담실 : 가정과 인기의 갈림길에서 - 여우(女優)를 아내로 가진 남편의 입장』, 『가정생활』, 1962. 12. 등이 있다.

21) 이성부 외, 『대중문학속의 여인상 - 꿈과 현실의 곡예사들』, 『여원』, 1975. 7.

22) 김은하, 『비밀과 거짓말, 폭로와 발설의 쾌락』, 『여성문학연구』 제2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302쪽.

박경리와 박완서의 대중문학 또한 이같은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선행연구들도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은하는 박경리 소설이 낭만주의적 자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여성 인물의 파토스(pathos, 정념)적 면모는 비틀린 성격의 증거라기보다 숭고미를 자아내는 반항아의 자질임을 간관해서는 안된다고 스스로를 고독한 벽지로 내모는 여성 인물들의 과대한 자의식, 의지적 열정, 고결한 것에 대한 추구, 비현실성 등은 낭만주의적 개인의 표상이라고 지적했다.<sup>23)</sup> 또한 김양선은 박완서 소설이 개발독재기 한국사회의 다양한 풍속도를 그리며 대중들의 취향이나 의식과 소통할 수 있는 명징한 스토리라인, 선과 악의 도덕적 양극화와 도식적인 인물 등 영화나 드라마적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여성이 연애나 결혼제도를 통해 겪는 가부장 제도와 근대적 개인을 구현했다고 평가했다.<sup>24)</sup> 이밖에 박경리와 박완서의 선행연구들<sup>25)</sup>은 낭만적 사랑에 실패한 여성의 비극성, 지배담론과 관습에

23) 김은하, 『포스트 한국전쟁과 여성적 숭고의 글쓰기』, 『아시아여성연구』, Vol.56 No.1, 숙명여자대학교아시아여성연구소, 2017, 37~62쪽.

24) 김양선, 『박완서 소설의 대중성 연구 : 1980년대 여성문제 소설 다시 읽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Vol.54 No.-,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2, 215~234쪽.

25) 김복순,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사랑과 이념의 두 구원』, 『현대문학의 연구』 6, 한국문학연구학회, 1996, 388~439쪽. 이상진, 『탕녀의 운명과 저항 - 박경리의 『성녀와 마녀』에 나타난 성담론 수정양상 읽기』, 『여성문학연구』 제1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289~324쪽. 오혜진, 『전근대와 근대의 교차적 여성상에 관해 :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 『시장과 전장』 『도지』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47, 국제어문학회, 2009, 323~352쪽. 이혜경, 『박경리의 『노을 진 들녘』에 나타난 여성성 연구- 에코페미니즘적 관점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44,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313~352쪽. 장미영,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와 섹슈얼리티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4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105~128쪽.

김은경, 『박경리 문학에 나타난 지식인 여성상 고찰』, 『여성문학연구』, Vol.20 No.-,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221~255쪽. 허연실, 『박경리 『가을에 온 여인』의 멜랑콜리적 주체 연구』, 『어문논집』, Vol.76 No.-, 민족어문학회, 2106, 147~170쪽. 이선미, 『박완서 소설의 서술성 연구 : 「나목」,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1, 188~220쪽. 최선영,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가부장제·자본주의 양상과 극복의 가능성』, 『현대소설연구』 5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431~455쪽. 김영택·신현순, 『박완서 소설의 정신분



대한 여성의 혐오, 그에 대한 반명제로서의 소외와 고립의 자처, 그리고 사회와 가정 사이에 낀 여성 정체성의 혼란 등 근대화와 젠더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했다.

본고는 근대화와 젠더 문제를 깊이있게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면서 지금까지 박경리와 박완서 작품에 나타난 추리 멜로드라마적 요소와 근대화의 젠더의식을 중심으로 논의한 연구서가 지극히 협소한 점에 주목해 논의를 전개해 나가하고자 한다. 『가을에 온 여인』과 『욕망의 응달』이 추리 멜로드라마라는 대중적 키워드로 근대화와 젠더의식을 담고 있는 점을 포착해 분석하고자 한다. 박경리와 박완서가 대중문학의 미약한 정체성<sup>26)</sup>을 추리 멜로드라마로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가부장제와 공모하고 저항하는 양가적 여성성을 형상화하면서 근대화와 여성성의 문제에 천착한 점을 살피고자 한다.

## 2. 사랑밖에 모르는 마녀의 '순수한' 욕망 혹은 폭력

『가을에 온 여인』은 중산층 가정에 대한 판타지를 해체하고 가정이 친밀성의 영역인 스위트홈임을 규범화한 지배담론의 '바깥'을 그린다.<sup>27)</sup>

---

석학적 고찰 - 『욕망의 응달』·『오만과 몽상』에 나타난 '복합적'·'불안'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63호, 어문연구학회, 2010, 295~317쪽. 김윤정,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남편"의 표상과 젠더 정치성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3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417~450쪽.

26) 대중문학의 정체성은 명확하지 않다. 개인주의 문학 혹은 자아중심적 문학과 대립되는 문학이라는 것과 순수문학 혹은 본격문학과 대립되는 문학으로 정의된다.(조성명, 『한국문학 대중문학 문화콘텐츠』, 소명, 2006, 18~19쪽)

27) 박경리 소설에서 '집'은 행복한 안식처인 친밀성의 영역이 아니다. 집은 가정의 허위, 폭력, 불구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공간이다. 또한 집은 의문 투성이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지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자, 범인의 은폐된 욕망을 감추는 은신처이다. 범인은 스스로 사회화의 고립을 자처하면서 집에서 자폐적인 생활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낯선 집에 우연히 머물거나 방문한 주인공들은 미스테리한 사건과 대면하게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 작품으로는 『가을에 온 여인』, 『타인들』, 『겨울비』등을 들 수 있다. (최경희, 『박경리(朴景利) 소설(小說)에 나타

“한 여자는 한 사나이의 세컨드, 한 남자는 한 여자의 젊은 제비, 그리고 한 사나리와 한 여자는 부부”라는 언술은 『가을에 온 여인』이 중첩되는 삼각관계를 통해 추리 멜로드라마를 형상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마녀와 성녀를 상징하는 여성인물에 대한 남성인물의 성적 판타지는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불화와 갈등, 병적 집착과 소유욕, 세디즘과 마조히즘, 자기희생과 결벽증 그리고 무엇보다 살인과 자살 등의 추리 멜로드라마의 요소를 통해 극대화된다.

삼각관계 양측에 있는 마녀와 성녀<sup>28)</sup>는 남성의 성적 판타지가 내면화한 폭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장치이다. 성녀로 언급되는 신정란과 나의화는 순결, 희생, 고전미 등으로 묘사된다. 반면 마녀로 언급되는 오세정은 변심한 연인을 살해하고 스스로를 단죄한다는 명목으로 연인의 형과 “산송장”같은 결혼생활을 하던 중, 죽은 연인과 닮은 남성인물과 만나 다시 사랑에 빠지지만, 또 다시 연인의 변심으로 살인계획을 세우는 폭력적 인물로 묘사된다. 주목할 점은 마녀의 사랑, 즉 오세정의 욕망이 연인의 변심으로 좌절되어 살인이라는 잔혹한 폭력과 비극을 초래한다는 서사가 내재한 것은 여성의 사랑, 여성의 욕망에 관한 천착이라는 것이다. 『가을에 온 여인』은 신성하고 숭고한 사랑에 관한 지배담론을 해체하고 전복하는, 살인마저 불사하는 마녀의 욕망을 강렬하게 전면에 내세운다.

오세정의 마녀적 기질은 사랑의 욕망을 발현하는 것으로 비중있게 묘

---

난 ‘추리소설(推理小說)적 모티프’의 의미와 양상 연구-『가을에 온 여인(女人)』, 『타인(他人)들』, 『겨울비』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8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382쪽)

28) 박경리 소설에서 성녀와 마녀의 인물 구도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작품은 『성녀와 마녀』(『여원』, 1960)이다. 이상진은 『성녀와 마녀』에 나타난 인물에 대한 지나친 유형성, 정보의 노출과 잉여적 서술, 마녀적 인물의 위악성, 불안과 충동, 광기가 지배하는 구조, 열린 결말 등이 작품의 방어적 읽기를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다시 말해 『성녀와 마녀』는 1950년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멜로드라마가 아니라 위악과 반어의 서서로서 당시 성담론을 해체하는 전복적 읽기를 의도한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상진, 앞의 논문, 290쪽)

사된다. 그녀의 마녀성은 “무서운 살기가 느껴지는 악미주의자”로 표현되며 “남성을 과멸시키고 말” 천성으로 묘사된다. 그녀에게 사랑이란 “핏빛 같고 흰색만 같은 정염”이며, “세상을 등지고 들어서” 살 수 있는 제도권을 뛰어넘는 절대적 지이다. 태생적인 마녀성은 사랑에 대한 절대적 욕망의 기저로 그려지며 주변인에게 그녀는 “사랑하기만 하면 먹어버리는 여자, 교미가 끝나면 수컷을 먹어버리는 곤충”같은, 위험하고 불온한 여성이다. 마녀의 욕망은 “송두리째 갖고 싶다는, 머리카락 한 오라기도 빼앗기기 싫다”는 연인에 대한 병적 소유욕으로 극대화되며, 타협이 불가능한 절대적 욕망은 그녀가 사랑의 과국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임을 암시한다. 이같은 여성 욕망의 극대화는 주체적 섹슈얼리티의 기준이었던 남성 인물이 흔들리고 여성인물이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는 박경리 소설의 연애서사<sup>29)</sup>방식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욕망의 좌절로 연인을 살해한 오세정의 과거는 신성표를 대상으로 반복될 위기에 처하며 추리 멜로드라마는 절정에 이른다. 신성표는 오세정에게 본능적이고 순간적인 욕망을 느끼지만 그녀가 유부녀라는 이유로 고심한다. “윤리를 파괴하는 현대의 영웅도 될 수 없고, 윤리를 지존의 것으로 수호하는 고대의 현자도 될 수 없다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신성표는 욕망과 윤리 사이에서 갈등한다. 욕망과 윤리사이의 갈등은 오세정의 비서 석영희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석영희는 신성표와의 육체 관계를 “애정에서 승화된 격정”으로 인식한다. 반면 신성표는 “연애를 모르고 애욕을 알고 있다는, 감정 책임을 지지 못하는 외로운 사나이”라는 자괴감을 갖는다. 결국 두 사람은 순결에 대한 석영희의 자기비하와 육체적 욕망에 대한 신성표의 죄의식으로 끝난다. 신성표는 사랑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본능적이고 순간적인 욕망에 가깝다는 것을 자책하며 윤리와 이성으로 억압한다. 반면 오세정은 직관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지향하며 광적인 욕망을 여과없이 드러낸다. 결국 신성표 때문에 “빠져린 고독”에

29) 장미영, 앞의 논문, 123쪽.

빠진 오세정은 과거 연인을 살해한 광적 욕망을 다시 드러내며 추리 멜로드라마는 절정에 이른다. 이렇듯 『가을에 온 여인』에서 남성인물에게 사랑이란 성적욕망과 다르지 않으며 유한한 것이다. 반면 여성인물은 사랑에 대한 절대성과 영원성을 지향한다. 사랑에 대한 여성인물의 욕망은 신비, 괴기, 처연, 그리고 살기 등 마녀적 기질과 비례하며 배가 된다. 여성인물의 과잉되고 극단적인 사랑의 욕망은 마녀적 기질과 궤를 같이하며 사랑의 욕망이 좌절되자 파괴적인 삶을 자처하는 그로테스크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가을에 온 여인』에서 부부란 마조히즘과 세디즘의 결합으로 표현되며 가정은 악의, 양심, 선정성, 부도덕, 그리고 위악적인 행동이 난무하는 공간이다. 강명하에게 오세정은 동생을 살해한 “추악한 영혼”이다. 강명하는 “내 동생의 피가 묻은 악마”라며 오세정을 성적으로 학대하며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낄 뿐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 이같은 폭력적인 부부관계를 연인 살해의 죄값으로 받아들이는 오세정에 대해 강명하는 “사디즘과 마조히즘이 만났으니 우리는 헤어질 수 없다.”면서 석영희와의 불륜도 공공연하게 드러낸다. 이와 같이 오세정은 합법적인 가족 관계 내에서의 아내 역할을 거부하고 사랑이 부재한 가운데 성립된 결혼이라는 법에 대해 저항한다.<sup>30)</sup> 이같은 폭력적 부부관계는 자기학대를 일삼는 오세정과 는 다르지만 자기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신정란에게서도 나타난다. 신정란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세형의 의처증적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그를 사랑하고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다. 신정란은 김세형이 사기죄로 감옥에 가자 생면부지의 박영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러한 신정란을 박영태는 성녀라고 인식한다. 이렇듯 마녀와 성녀로 대변되는 여성인물들은 사랑을 위해 각 각 살인과 자기희생을 감수한다. 무엇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살인까지 저지른 오세정의 광기어린 욕망은 질투, 시기, 악의 등의 멜로드라마적 요소를 극대화하면서 묘파된다. 또한 사랑이 살인과 자

30) 김은경, 앞의 논문, 229쪽.

살이라는 폭력으로 파국되는 추리 전개는 살인자체 보다 살인 동기를 설득력있게 그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가을에 온 여인』은 범죄에 대한 윤리문제와 법의 처벌로 선과 악의 경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고전적 추리서사의 특징에서 벗어나 있다. 오세정의 살인을 밝히는 추리 과정은 죄에 대한 처벌보다 오히려 범죄자에 대한 감정이입과 범죄동기에 대한 공감에 더 무게를 둔다. 무엇보다 살인자 오세정의 자살은 인과응보적이고 권선징악적으로 인식되지 않고, 공범의식을 갖게 한다. “사랑이라는 것이 좌절되었을 때 사람은 누구나 다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것에서 드러나듯이 사랑이 내재한 폭력성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가을에 온 여인』은 사랑을 신성하고 숭고한 결혼의 전제로서 다룬 지배담론에서 배제된 여성의 욕망을 폭력적 사랑으로 극대화한다. 사랑은 폭력적 욕망을 내재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비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묘파함으로써 살인 동기 또한 설득력을 얻는다. 그런 점에서 사랑과 살인으로 압축되는 추리 멜로드라마적 요소는 사랑에 관한 당대 담론의 외연을 확장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연애의 순수성을 재어보는 사회의 눈도 애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은 오세정이 추구한 절대적 사랑의 욕망이 폭력적임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폭력이라는 역설을 뒷받침한다. 살인마저 불사한 오세정의 욕망은 남성중심의 욕망사회를 겨냥한 전복적인 폭력이다.

오세정의 욕망이 전복적인 것은 남성의 성적 판타지에 대한 저항을 살인이라는 극적 상황으로 몰고가기 때문이다. 강영하와 신성표의 성적 판타지는 마녀와 성녀 사이에서 방황하지만 성녀에게 안착하며 욕망을 충족한다. 반면 오세정의 욕망은 좌절되고 살인이라는 폭력성으로 표출된다. 또한 오세정의 마녀성은 성녀적인 나의화의 존재로 인해 극대화된다. 작품에서 나의화가 차지하는 분량은 미비하지만 그녀는 오세정이 살인자가 되는데 직접적 동기를 제공하는 인물이다. 오세정은 연인 강영하가 나의화와 결혼하자, 강영하를 살해한 후 그의 형 강명하와 결혼했으므로 나의화는 죽은 시동생의 아내가 된다. 뿐만 아니라 신성표가 나의화를 선택

함으로써 오세정의 두번째 살인 계획 또한 나의화가 제공한 셈이 된다. 주목할 점은 신성표의 욕망이 오세정에서 나의화로 이동한 것, 즉 마녀에서 성녀로 이동한 것은 나의화의 성녀적 이미지에 대한 끌림 때문이라는 점이다. 신성표는 첫만남에서 나의화를 성모로 인식한다. 오세정보다 뛰어난 미모는 아니지만 “그 영혼의 맑음, 그의 자태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는 그 천부의 것은 오부인의 미모”를 능가한다면서, ‘성처녀(聖處女)’ 같다고 느낀다. 이처럼 나의화는 남성의 성적 판타지가 허용되고 여성의 욕망은 금기된 사회적 현실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가을에 온 여인』은 이와 같이 한국문학에서 보기 드물게 여성의 욕망을 살인이라는 극단적 폭력으로 구현한 추리 멜로드라마이다. 여성인물의 마녀적 기질은 변심한 연인을 살해하는 광적 욕망과 자신이 죽인 연인의 형과 결혼해 스스로 죄값에 대한 단죄를 내린 가학으로 묘사된다. 무엇보다 이 작품이 여성인물의 범죄를 법의 처벌과 사회의 윤리문제로 서술하지 않고 범죄동기를 더욱 무게감있게 다룬 점, 즉 살인의 폭력성을 부각시켜 사회·윤리적 경각심으로 환기시키기 보다는 살인동기를 설득력있게 묘사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여성인물이 연인을 살해하고 자살로 몰락하는 추리 멜로드라마가 집요하게 가닿는 곳은 여성의 욕망이다. 이때 욕망을 표출하는 여성인물은 마녀로 표상되며 남성의 욕망에 선택되었던 여성은 성녀로 표상된다. 금기된 마녀의 욕망은 살인과 자살이라는 비극적 결말인 반면 일방적이고 모순적인 남성인물의 욕망은 마녀와 성녀사이에서 방황하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허용된다. 결국 마녀는 남성에게만 욕망을 허락한 사회에 대해 살인으로 저항한다. 다른 말로 하면 여성인물의 살인과 자살은 남성중심적 욕망사회에 대한 저항과 남성적 판타지가 만연한 사회의 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한계, 그리고 여성 욕망의 표출은 금기임을 묘사한 것이다.

『가을에 온 여인』은 이와 같이 추리 멜로드라마를 통해 남성 중심의 욕망사회에서 여성의 욕망이 표상될 수 있는가를 문제적으로 다룬다. 범죄자 여성인물의 자살은 남성에게만 국한된 사랑의 욕망을 해체하려는

죽음이라는 점에서 범인의 죽음은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죽음이다. 그런 점에서 『가을에 온 여인』은 마녀와 성녀라는 스테레오타입의 여성인물과 남성의 성적 판타지 그리고 사랑과 살인이라는 추리 멜로드라마를 통해 여성의 욕망이 어떻게 살인이라는 ‘순수한’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현실감 있게 구현하며 사랑을 둘러싼 당대 젠더의식의 한계를 심도있게 구현한 작품이다.

### 3. 가정의 수호자와 파괴자 그리고 아버지의 ‘응달’

『욕망의 응달』은 미혼모 자경이 저택집에 사는 민우와 사랑에 빠져 결혼한 후, 저택집 살인사건에 휘말리고 사건 원인을 추적하면서, 근대화 시기 성과 돈에 대한 욕망만을 쫓은 시아버지의 폭력적 과거사와 깊게 연루된 사건임을 밝혀내 위기에 빠진 가정을 구해낸다는 추리 멜로드라마이다. 무엇보다 『욕망의 응달』은 “가정을 한국 근대의 병리성이 폭로되는 장소”<sup>31)</sup>로 포착한 박완서 소설의 큰 기류에 속하는 작품이고 박완서 소설의 특징중 하나인 삶(역사)에서 은폐된 것을 들춰내고 그것의 ‘이면’을 이해함으로써 은폐되거나 억압될 수 밖에 없는 역사적 계기, 혹은 역사적 실상을 폭로하고 비판하려는 작가의식<sup>32)</sup>을 구현한 작품이다.

자경에게 집은 병석에 누워서도 “지옥의 목소리”로 권위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시아버지와 상속에만 관심있는 어머니가 다른 자식들이 아버지의 폭력적 과거사를 폭로하는 병리적인 공간이다. 시아버지의 과거는 한국전쟁과 근대화라는 전환기에 빚어진 역사적 과오와 맞물려 서술된다. “근대화의 바람, 재건의 바람을 잘 타고 이용한 덕”에 부를 축적한 시아

31) 박완서 소설은 중산층 가정과 여성성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온 내셔널리즘의 문화정치학을 내파하려는 듯 가정을 한국 근대의 병리성이 폭로되는 장소로 포착했다.(김은하, 앞의 논문, 306쪽)

32) 이선미, 앞의 논문, 192쪽.

버지는 “성의 물란을 자행하면서 자신의 전성기를 만끽”했다. 현재 시아버지는 과거의 죄값을 받는듯 병석에서 참혹하게 죽어가고 “함부로 퍼뜨린 자손들”은 상속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다. 집안의 불화와 갈등, 불안과 공포는 막내 시누이 영우의 의문사로 절정에 이른다. 가족들의 안전마저 위태로져 집안 분위기는 흉흉해지고, 마침내 자경은 사건의 열쇠를 쥔 인물인 젊은 시어머니 소희임을 감지하면서 사건을 풀어간다. 주목할 점은 작품의 결말이 가정을 몰락 위기에서 구한 자경과 가정을 파괴한 소희를 각각 가정의 수호자와 파괴자라는 선과 악으로 구획짓고 가정의 신성성과 숭고함을 위배하는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여성성을 가정의 수호자로 규범화한다는 점이다.

『옥망의 응달』은 범죄자 소희와 범죄 해결사 자경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소희가 저지른 살인사건의 원인 제공자 시아버지는 시체와 다름없는 상태이고 자경의 남편 민우는 사건해결의 의무를 느끼지만 무기력하다. 아버지의 ‘인과(因果)’의 베일을 벗겨 살인자를 찾아내는 일, 즉 동생 영우의 의문사를 규명하는 일은 그의 몫이지만 아버지의 과거, “그 추악한 것들”을 회피한다. 아버지의 죄스러운 과거를 청산해야하는 “무거운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다. 민우는 대를 잇는 자식에게 상속하겠다는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미혼모 자경을 선택한 만큼, 유산에 더 관심을 둔다. 이처럼 『옥망의 응달』의 남성인물들은 박완서 소설에서 자주 제시되는 규범화되고 관습화된 남성성, 젠더 규범에 교란을 가치는 주변적 남성성을 보여준다.<sup>33)</sup> 반면 민우의 새어머니 소희와 아내 자경은 각각 가해자와 사건해결사로 사건의 처음과 끝을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 특히 아버지의 폭력, 근대화의 ‘응달’을 청산하는 그녀들의 방식에는 당대의 젠더의식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먼저 자경은 올케 영우의 사고사가 젊은 시어머니 소희와 연루되어 있음을 처음부터 직관한다. 그녀가 사건을 푸는 과정은 저택집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것과 궤를 같이 하며 가정과 가

33) 김윤정, 앞의 논문, 445쪽.



족의 행복을 찾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 상실 또한 회복한다.

가정의 행복이 여성의 행복과 비례한다는 자경의 자의식은 민우와의 결혼전, 미혼모로서 겪은 존재론적 상실감에서도 나타나는데, 미혼모에 대한 당대의 젠더의식은 가족과 이웃의 시선으로 날카롭게 묘사된다. 남자친구가 사고로 죽자 자경은 미혼모에 대한 가족과 이웃 등 사회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자존감 상실에 시달린다. 미혼모는 부모형제에게 “집안의 망신”이고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는 죽은 아들의 재산을 노리는 파렴치한이다. 혼전임신과 아버지 없는 아들을 키우는 일, “그 두가지를 다 자연스러운”일로 받아들이며 살기에는 “처녀 때 바람을 피워 애까지 낳은 여자가 혼자 스캔들 하나 없이 살다니, 별꼴”이라는 주변인들의 냉혹한 시선은 자경에게 견디기 어려운 삶의 무게가 된다. 흔들리는 자존감과 정체성 균열로 인한 생활 스트레스를 푸는 자경의 유일한 취미는 “점쟁이가 베풀어준 허망의 세계에 탐닉”하는 것이다. 점쟁이는 그녀의 고독과 외로움을 “송죽 같은 절개”라며 위로할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누릴 팔자라며 미래의 불안을 씻겨준다. 때문에 자경은 고독, 외로움, 불안 등 내면에 쌓이는 침잠들을 “점쟁이집을 찾는 빈도”를 늘리며 위안 삼으려 하지만 “날이 갈수록 허망의 세계에서 빨아올린 생기의 지속성은 짧아지고”, 결국 허무와 공허 등의 내적 구멍들은 메꿔지지 않는다. 이것은 저택 집 막내아들 민우의 돌연한 청혼을 쉽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된다. 결국 결혼이라는 제도권의 생활양식이 자신의 존재감 상실을 회복시켜줄거라는, 결혼의 판타지에 빠져 자경은 민우의 청혼을 받아들인다. 또한 “총각이, 그것도 부잣집 총각이 사생아를 가진 연상의 여인한테 구혼”한 것에 대해 당혹해하는 자경의 태도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녀의 속내를 보여준다. 이렇듯 자경의 결혼관은 당대의 젠더의식을 재생산하고 있다. 한편 자경이 민우와의 결혼으로 외롭고 고독한 미혼모의 생활을 보상받으려 했다면 민우는 집안의 대를 잇는 자식이 상속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미혼모인 자경과 결혼한다. 사랑이 아닌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자경과 민우는 결혼하고 가족이 된다. 때문에 자경의 결혼

생활이 불행할거라는 예측이 가능하며, 이것은 추리서사의 주인공이 곧 닥쳐올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건에 휘말리는 과정과 흡사하다.

자경의 기대와는 달리 결혼생활은 미혼모 시절의 자존감 상실을 회복 시켜주지 않는다. 집안의 불운과 위기를 직관하지만 해결할 수 없다는 불안과 회의가 그녀를 엄습하기 때문이다. 죽어가는 시아버지, 음모로 가득한 젊은 시어머니, 그리고 상속에만 관심을 둔 시동생과 시누이들의 모습은 자경이 상상했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아니었다. 가족들에 대한 두려움, 수상쩍음, 그리고 알지못할 공포로 그녀는 결혼전과 다름없이 불행하다고 느낀다. 갈수록 깊어지는 이같은 감정의 실체가 어디서 기원하는 것인지 방황하면서 “저 기분 나쁜 돌집에 감추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남편 민우에게 추궁하며 분노한다. 동시에 “자식까지 데리고 시집갔으니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저택집에서 탈출하고 싶은, 결혼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자기보호본능과 민우를 사랑하고 그가 이들 운명을 해롭게 할 사람은 아니라는 희미한 믿음이 그녀의 내면에 공존한다. 집안에 대한 알지 못할 두려움에 휩싸이면서도 민우의 사랑을 갈망하는 양가감정이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면서, 시누이 영우의 의문사로 그녀의 결혼 위기는 고조된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혼란스러운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자경은 민우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가느다란 믿음 때문에 가정을 위기로부터 구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저택집에 대한 공포와 사랑의 욕망이 양립하는 가운데 그녀는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을 “문란한 여자”로 오인받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여자의 욕망하고 남자의 욕망”은 다르다면서 자신의 욕망을 억압한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욕망을 위기에 처한 가정을 구하겠다는 의지로 승화시킨다.

결혼을 통해 존재감을 확립하고자한 자경의 의도와는 달리 결혼으로 그녀는 더욱 정체성의 위기를 느낀다. 그러나 마침내 파탄 위기에 처한 저택집의 구원자가 되면서 그녀는 정체성을 회복해 나간다. 그녀는 가족과 가정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절대적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며 가정의 재건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 미혼모의 삶은 고독

뿐일거라는 미래의 불안에서 빠져 나가기 위해 미심쩍은 민우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수상적인 결혼생활에 방황하던 자경은 집안에서 일어난 의문사와 대면하게 되자 “천성의 당돌한 호기심”으로 자신이 집안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 “겪는 대까지 겪어보리라는 배짱”으로 모한 자부심을 갖는다. 그리고 실족해 시신으로 발견된 올케 영우의 의문사가 젊은 시어머니 소희의 소행임을 밝혀낸다. 이렇듯 자경은 점차 특유의 직관력을 발휘하며 살인사건을 풀면서 가정과 가족이 그녀의 존재이유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자경이 이처럼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쥔 인물이라면, 소희는 집안의 복수를 위해 살인까지 저지른 범인이다. 그녀는 죽어가면서도 “살아 있는 모든 것에 저주”하며 권위적 태도로 가족에게 군림하는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며 복수할 기회를 엿본다. 민우는 새어머니 소희의 음모를 모른 채 “가냘프고 우아한 몸매와 착하고 다정한 성품”을 가진 소희가 아내와 어머니로서 완벽한 여성이라고 여긴다. 반면 자경은 시어머니 소희의 모든 행동에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관하고 관찰하면서 영우를 죽인 범인임을 밝혀낸다. 소희는 집안을 몰락시킨 원수에 대한 복수로서 민우의 아버지와 결혼했다. 부유한 집안의 무남독녀로 자란 소희는 집안의 파산으로 삶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당시 채권자는 민우의 아버지였다. 이후 가장이 된 소희는 술집 접대부로 전락해 악착같이 돈을 모으며 가족과 자신의 삶을 파괴한 자에 대한 복수할 날만 기다린다. 마침내 원수의 후처가 된 그녀는 남편을 헌신적으로 간호하고 자기보다도 나이 많은 전실자식들을 자애롭고 공평하게 돌보기까지 하면서 “이미 부식할 대로 부식한” 남편의 시신을 재산몰수가 끝날 때 까지 은폐하기 위해 남편의 목소리를 녹음기로 재현한다. 이것을 의붓딸 영우가 의심하자 사고사로 위장해 살인을 저지른다.

소희의 복수는 실패한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참혹한 죽음으로 삶을 마감한다. 폭력을 폭력으로 맞선 행위는 폭력의 재생산일 뿐임을 소희의 비극적 말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소희의 말로는 처참하다. 집안의 화

재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무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면서도 “목침만한 카세트 녹음기, 민우 아버지의 괴성을 녹음해, 살아있는 것처럼 틀어댄” 녹음기에서 손을 떼지 못한다. 소희의 복수심은 녹음기가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경한 화상”으로 그로테스크하게 묘사된다. 근대화의 그늘, 근대화의 폐해를 상징하는 아버지의 비윤리적 삶이 참혹하게 마무리된 것처럼 소희의 죽음 또한 그러하다. 『육망의 응달』은 이와 같이 가정 파괴는 비극적 죽음으로 응징해야 할 범죄임을 경고한다. 자경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소희의 비극적 말로는 가정을 파괴한 자에 대한 인과응보적 결과이다. 반면 작품의 결말은 자경이 행복한 미래를 보장받는다라는 점을 암시한다. 폭력을 폭력으로 응징한 소희로부터 가족을 지킨 자경은 행복할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육망의 응달』은 근대화의 ‘응달’을 처벌하려는 소희와 ‘양달’로 재건하려는 자경을 통해 근대화의 폐해를 청산하는 방식을 추리 멜로드라마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특히 사건을 추적하고 해결하는 자경과 살인자 소희가 근대화의 폐해를 내면화하는 방식에는 당대의 젠더의식이 내재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복수자 소희는 폭력을 폭력으로 재생산했고 인과응보적인 죽음으로 삶을 마감했다. 소희의 복수서사, 즉 그녀의 범죄동기 묘사는 공감을 일으키는 설득력이 배제되어 있다. 소희의 복수서사는 폭력을 응징하는 정의로움으로 묘사되지 않으며 가정을 파괴한 악마성으로 서술된다. 복수는 또 다른 폭력의 재생산이며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똑같은 악임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자경은 가정을 위기에서 구할 수 호자적 이미지로 표현되며 이상적 여성상으로 묘사된다. 추악한 시아버지의 폭력적 과거로부터 시작된 시누이 영우의 의문사는 자경을 통해 일단락 되고 자경은 가정을 재건하는 진정한 저택집의 안주인으로 등극한다. 폭력을 폭력으로 대적한 소희의 비극적 죽음과 달리 자경은 남편과 가족을 사랑으로 감싸는 완벽한 아내의 모습으로 스위트홈에 안착한다. 이렇듯 『육망의 응달』은 근대화의 폐해를 청산하는 여성인물들의 두 방식을 통해 가정의 행복만이 여성의 삶에서 바람직한 존재양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한다. 그런 점에서 『육망의 응달』은 가정의 신성성과 숭고함을 지키는 여성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당대의 젠더 질서를 내면화한 추리 멜로드라마이다.

#### 4. 결론

박경리와 박완서가 대중성 짙은 작품을 발표한 1960-1970년대는 언론·출판이 통제된 시기이다. 언론은 검열의 대상이 되었고 대중의 비판의식은 가시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중문화는 확장되었다. 대중문학은 물질적으로는 성장과 개발의 논리를 정신적으로는 공동체적이며 금욕적인 가치관을 내세우는 근대화 담론에 순응 혹은 저항 하면서 광범위한 독자층을 형성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박경리와 박완서는 추리 멜로드라적 서사를 통해 대중성을, 근대화와 젠더문제에 친착해 문학성을 확보했다. 먼저 박경리의 대표적 추리 멜로드라마는 『가을에 온 여인』, 『겨울비』, 『타인들』 등이 있다. 이 작품들은 연애와 결혼의 순결성, 신성성, 숭고함 등을 강조한 지배담론에 반(反)하는 살인과 자살이라는 폭력과 비극이 난무하는 사랑서사의 ‘바깥 공간’을 다루었다. 이 작품들은 직·간접으로 살인과 연루된 기이하고 신비한 여성인물, 여성인물의 비극적인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소아마비’, ‘사생아’, ‘고아’등의 인물, 그로테스크한 가정, 그리고 위협적인 가족관계를 긴장감있게 구현하면서 여성에게 가정과 가족이 폭력적 대상일 수 있음을 묘사했다. 또한 범죄자에 대한 주변인의 호감, 무서움, 신비감, 연민, 매혹 등의 양가감정, 선악의 이분법 해체,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일시 등을 통해 사랑의 감정을 폭력성으로 변질시킨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설득력있게 구현했다. 또한 추리 멜로드라마에 해당되는 박완서의 작품으로는 『도시의 흥년』과 『육망의 응달』 등이 있다. 『도시의 흥년』은 만들어진 전통의 위계화가 여성성의 억압과

가족의 비극을 초래한 점을 ‘금기의 덧’에 걸린 여성화자의 발화로 전개 하면서 ‘콩가루’같은 가족의 치부를 통해 가족과 젠더의 위계화를 보여준 작품이다. 또한 『욕망의 응달』은 도시적 욕망의 그림자와 잔혹한 복수극을 구현한 작품으로 숙명적 불행과 고독을 헤쳐 나가던 자경이 민우와 결혼하면서 상속을 둘러싼 음모와 복수극에 휘말리고 끝내 가정을 수호한다는 드라마틱한 서사를 구현한 작품이다. 본고는 두 작가의 추리 멜로 드라마적 서사들 중에서 『가을에 온 여인』과 『욕망의 응달』에 주목하였다.

지금까지 박경리와 박완서의 대중문학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대중서사가 내재한 젠더의 문제를 깊이있게 연구해 왔다. 두 작가의 대중문학이 순응과 저항의 이중서사로서 남성중심의 근대화체제에서 소외된 여성 정체성 문제를 형상화한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경리와 박완서가 대중문학 장르의 구체적 구성요소인 추리 멜로드라마로써 젠더 문제를 형상화한 점을 밝힌 선행연구는 부족한 형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본고는 박경리의 『가을에 온 여인』과 박완서의 『욕망의 응달』에 나타난 추리 멜로드라마가 근대화 담론이 내재한 젠더질서를 재생산, 교란, 해체한 점을 분석하였다. 본고는 『가을에 온 여인』이 사랑에 대한 욕망과 병적 소유욕, 남성의 성적 판타지, 불구적인 가족 관계, 사디즘적이고 마조히즘적인 부부생활, 여성의 모성과 자기희생, 무엇보다 살인과 자살 등 추리 멜로드라마를 통해 연애와 결혼 대한 지배 담론을 뛰어 넘으며 보다 근원적인 사랑의 문제에 천착한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마녀와 성녀 그리고 남성의 성적 판타지라는 드라마틱한 서사를 통해 살인에 대한 양가감정, 선과 악의 해체 그리고 범죄동기의 감정이입 등을 묘파함으로써 사랑의 절대성을 추구한 여성이 어떻게 살인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형상화하며 젠더의식을 문제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욕망의 응달』이 죽은 남자/사파리 아저씨/연하의 어머니/밀월/저택집 사람들/참변/인과(因果)의 집/인간의 꽃 등 추리 멜로드라마적 전개로 근대화의 ‘응달’로 상징되는 아버지의 폭력적 과거사를 청산하는 두 여성인물의 서로 다른 방식을 통해 젠더질서를 재

생산 점에 주목하였다. 『욕망의 응달』이 미혼모와 상속자와의 결혼, 복수의 음모를 숨긴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젊은 시어머니, 죽어가는 아버지의 유산을 둘러싼 암투, 그리고 ‘저택집’ 살인사건의 내막을 푸는 과정에서 가정을 위기에서 구하는 여성성을 형상화해 가정의 신성성과 숭고함을 재생산한 점을 분석하였다. 무엇보다 본고는 이 작품들이 사랑과 욕망 그리고 살인이라는 추리 멜로드라마를 통해 사랑과 욕망이 남성중심으로 유통되는 근대화 사회자체가 폭력이라는 점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젠더의 징후를 보여준 작품들임을 살폈다.

본고는 앞으로 1960-1970년대 대중문학의 전략과 의의를 유추할 수 있는 ‘추리’와 ‘젠더’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박경리와 박완서의 작품 외에 강신재의 『그대의 찬손』, 손장순의 『세화의 성』, 한말숙의 『하얀도정』,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 조해일의 『갈수 없는 나라』 등으로 논의를 확장해 추리 멜로드라마의 대중문학적 위치를 검증하도록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박경리, 『박경리문학전집8-가을에 온 여인』, 지식산업사, 1980.

박완서, 『욕망의 응달/박완서 전집5』, 세계사, 1993.

『가정생활』

『여상』

『여원』

### 2. 단행본

대중문학연구회,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30~31쪽.

- 이병천, 『개발독재의 정치경제학과 한국의 경험』,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창작과비평사, 2003, 60~65쪽.
- 조성면, 『한국문학 대중문학 문화콘텐츠』, 소명, 2006, 18~19쪽.
- 조한혜정,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또하나의문화, 1998, 95쪽.
- Ben Singer, 『벨로드라마와 모더니티』, 이위정 역, 문학동네, 2009, 63쪽. 83쪽. 199쪽.
- Elaine Kim 외, 『위험한 여성』, 박은미 역, 삼인, 2001, 40~41쪽.
- Reuter, 『추리소설』, 김경현 역, 문학과 지성사, 2000, 120쪽.
- Todorov, 『산문의 시학』, 유제호 역, 예림기획, 2003, 47~48쪽.

### 3. 논문

- 김복순,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사랑과 이념의 두 구원』, 『현대문학의 연구』 6, 한국문학연구학회, 1996, 388~439쪽.
- 김양선, 『박완서 소설의 대중성 연구 : 1980년대 여성문제 소설 다시 읽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4,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2, 215~234쪽.
- 김영택 · 신현순, 『박완서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고찰 - 『육망의 응달』 · 『오만과 몽상』에 나타난 '콤플렉스' · '불안'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63, 어문연구학회, 2010, 295~317쪽.
- 김윤정,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남편"의 표상과 젠더 정치성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3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417~450쪽.
- 김은실, 『한국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논리와 가부장성』, 『당배비평』, 1999, 가을호, 87쪽.
- 김은하, 『비밀과 거짓말, 폭로와 발설의 쾌락』, 『여성문학연구』 제2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302쪽.
- \_\_\_\_\_, 『포스트 한국전쟁과 여성적 송고의 글쓰기』, 『아시아여성연구』, 56권 1호, 숙명여자대학교아시아여성연구소, 2017, 37~62쪽.
- 오혜진, 『전근대와 근대의 교차적 여성상에 관해 :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



- 들』 『시장과 전장』 『토지』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47, 국제어문학회, 2009, 323~352쪽.
- 이상진, 『탕녀의 운명과 저항 - 박경리의 『성녀와 마녀』에 나타난 성담론 수정양상 읽기』, 『여성문학연구』 17,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289~324쪽.
- 이선미, 『박완서 소설의 서술성 연구 : 「나무」,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1, 188~220쪽.
- 이혜경, 『박경리의 『노을 진 들녘』에 나타난 여성성 연구- 에코페미니즘적 관점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44,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313~352쪽.
- 임현영, 『산업화시대의 문학정신』, 『동아일보』, 1978. 3. 2.
- 장미영,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와 섹슈얼리티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4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105~128쪽.
- 최경희, 『박경리(朴景利) 소설(小說)에 나타난 ‘추리소설(推理小說)적 모티프’의 의미와 양상 연구-『가을에 온 여인(女人)』, 『타인(他人)들』, 『겨울비』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8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382쪽.
- 최선영,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가부장제 · 자본주의 양상과 극복의 가능성』, 『현대소설연구』 5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431~455쪽.
- 허연실, 『박경리 『가을에 온 여인』의 멜랑콜리적 주체 연구』, 『어문논집』 76, 민족어문학회, 2106, 147~170쪽.

## Abstract

mystery melodrama and gender of the modernization : Focused on Park Kyung Ri and Park Wan suh's fictions in the 1960's through the 1970's

Choi, Kyung-hee

Pieces of work such as 『Woman who comes in autumn』 and 『Shade of Desire』 show popular characteristics of Park Kyung Ri and Park Wan suh,'s fictions at the same time paving the way for researching female identity according to the social and historical ideology forming the foundation of Park Kyung Ri and Park Wan suh,'s fictions. Park Kyung Ri and Park Wan suh,'s fictions different from the narrative structure of classical mysterious stories where the cause of a crime and the final outcome of an accident are clear, pays his attention to the internal consciousness and social background of the criminal revealed in the process of committing a crime not the crime itself. So to speak, he criticizes materialistically the logic of growth and development which is inherent in violence brought about from the frustrated desire of the criminal revealed in the process of looking for an answer to a puzzle, and mentally contradiction of modernization discourses in the 1960's through the 1970's stressing communal and ascetic values.

Key words : Park Kyung Ri, Park Wan suh, melodrama, Ratiocination Technique, mobilize, women, gender, home

- 본 논문은 2018년 7월 25일에 접수되어 2018년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8년 8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